

# 3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7,000선 무너져 [DOW: 6,763.29pt (-4.24%)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7,000선을 하회하며 12년래 최저치로 밀렸고, 유럽증시도 6년래 최저치로 밀리는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음. 다우 지수는 1997년 4월 이후 12년래 최저치로 추락했음. 연초 이후 하락률은 22%에 달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도 올들어 21% 떨어지며 12년래 최저치를 경신했음. 유럽증시도 6년래 최저치로 떨어졌음. 범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는 5% 하락한 164.30을 기록했고, 특히 영국의 HSBC가 19%나 폭락하는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유럽과 미국증시의 동반 하락을 이끌었음.
금융시스템 불안감 고조	개장전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는 작년 4분기 617억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미 정부는 AIG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300억달러의 추가적인 구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정부 지원 결정으로 AIG 주가는 강세를 기록했지만 이미 1,500억달러를 지원받은 AIG의 추가적인 대규모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구제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했음.
건설지출 4년래 최저	미 상무부가 발표한 1월 건설지출은 연율기준으로 전월비 3.3% 하락한 9,862억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2004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하락폭도 월가의 전망치(-1.5%) 2배 이상 앞질렀음. 특히 구성항목 중 주택건설 지출의 경우엔 2,915억달러로 최근 10년래 최저를 기록했음. 주택건설은 미국의 리세션을 몰고온 주된 원인중 하나로 꼽힘.
국제유가, 10%대 급락 [WTI: \$40.15 (-\$4.61)	지난 1월 7일 이후 근 2달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 40달러선에 턱걸이 했음.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경기불안감이 불거진 점이 영향을 미쳤음.
중증시, 亞서 나홀로 상승..상하이 0.5%↑	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들어 반등, 지난 주말보다 10.6포인트(0.51%) 오른 2,093.45로 장을 마감. 선전종합지수도 1%대 상승 마감.
日, 2월 차판매..35년래 최저 추락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2월 국내 신차판매대수는 경자동차를 제외하고 총 21만8,212대로 전년동기대비 32% 감소. 지난 2월 토요타와 혼다의 판매대수는 각각 32%, 21% 감소. 3위업체인 닛산자동차의 판매도 35% 크게 감소.

제목	주요 내용
'EU發 약제'에 동유럽 환율 일제급락	EU(유럽연합)가 동유럽에 국가에 대한 구제 지원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동유럽 환율이 급락.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융 위기로 몰려 들어 내내 약세를 보여 온 헝가리의 포린트는 이날 한달래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동유럽의 환율 하락을 주도.
외환보유액 2천억달러 유지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15억 4,000만 달러로 전월의 2,017억 4,000만 달러에 비해 2억달러가 감소.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폭인 274억 2,000만달러가 급감했고, 11월에도 117억 4,000만달러가 줄었음. 이에 따라 11월말 2,005억 1,000만 달러로 1,000억 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뒀으나 12월 7억 2,000만 달러, 올해 1월 5억 2,0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하면서 2,000억 달러를 유지했음..
해외IB, 한국 성장률 전망 -3%	동유럽과 미국 등에서 촉발된 2차 금융위기 설이 불거지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고 있음.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씨티은행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 2월 말에 예측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9%로 집계. 이는 한 달 전인 1월 말 집계치인 -2.3%에 비해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임.
저축률 2%대... 소비 여력 없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순저축률이 2007년 기준으로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순저축률이란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을 뜻함. 개인순저축률 2.3%란 한 달에 300만원을 벌어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불과 6만 9,000원뿐이라는 얘기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